



SBS '날아라 개천용' 권상우(왼쪽)와 배성우 tvN '스타트업' 남주혁(왼쪽)과 김선호 tvN '구미호뎠' 이동욱(왼쪽)과 김범

정의구현 콤비...수지의 남자...불타는 형제

〈권상우-배성우〉

〈남주혁-김선호〉

〈이동욱-김범〉

'날아라 개천용'... 변호사·기자 호흡 '스타트업'... 첫사랑 연적 관계로 '구미호뎠'... 매번 부딪치는 형제

고졸 출신 열혈 변호사와 '생계형' 기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재심 사건에 뛰어들면서 콤비가 된다. 드라마는 기자 출신 박상규 작가가 실제 재심 사건을 모티브로 쓴 책 '지연된 정의'를 토대로 했다.

안방극장에 '브로맨스'가 뜬다. 남자 주인공들의 호흡이 돋보이는 드라마가 연달아 시청자를 찾는다. 권상우·배성우가 주연해 30일 첫 방송하는 SBS '날아라 개천용', 남주혁·김선호가 주인공으로 나선 tvN '스타트업'과 이동욱·김범의 tvN '구미호뎠' 등이다. 극 중 남자 주인공들의 관계가 극적 긴장감을 높이거나 코미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브로맨스' 주역들에게 시청자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두 주인공은 예고편에서부터 코믹한 호흡을 자랑한다. 경직된 사법시스템에 맞서 "정의구현"을 외치며 통쾌한 재미를 이끌어낼 기세다. 권상우는 27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데뷔 이후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라면서 "배성우와 현장에 있는 게 즐거울 뿐"이라고 밝혔다. 배성우도 "이런 떡이 굴러 들어왔나" 싶은 작품"이라며 "아이디어가 풍부한 권상우와 호흡이 만족스럽다"고 화답했다.

주인공인 배우지의 '첫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재미를 높인다. 학창시절 배우지의 할머니 부탁을 받은 김선호가 신문에서 본 남주혁의 이름을 빌려 배우지와 편지를 나누면서 복잡하게 얽힌다. 배우지가 뒤늦게 편지 상대를 만나려하자 김선호는 한 발 먼저 남주혁을 찾아내 편지를 나눈 당사자로 '둔갑'시킨다.

배수지를 속이려는 두 사람의 눈물겨운 노력이 뜻밖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노력에 '스타트업'은 5%대(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배우지를 사이에 두고 연적으로 돌변하는 관계의 변화도 향후 시청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호 형 이연과 동생 이광으로 '형제의 난'을 치르고 있다. 사사건건 부딪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몸싸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치고받다가도 서로 "아우야" "형이"라고 부르며 여유롭게 농담을 나누는 모습이 코믹한 매력을 뽐낸다.

애증으로 얽힌 이동욱과 김범은 드라마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핵심이다. 김범의 휘방으로 계속 엇갈리는 이동욱과 조보아의 로맨스가 이야기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황. 일부 시청자들은 이동욱과 조보아의 러브라인보다 형제의 종잡을 수 없는 관계가 더 흥미롭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범은 "이광은 약당이지만, 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해 재미있다"고 밝혔다.

● 권상우·배성우... '찰떡' 코믹 호흡 두 사람은 '날아라 개천용'에서 각각

● 남주혁·김선호... 콤비에서 연적으로 '스타트업'의 남주혁과 김선호는 여

● 이동욱·김범... 애증으로 불타는 형제 이동욱과 김범은 '구미호뎠'에서 구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이아현, 재미교포 사업가와 이혼

연기자 이아현(48)이 재미교포 사업가 이모씨와 이혼했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측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구제적인 시기와 사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아현은 2018년 이씨와 결혼했다. 앞서 1997년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던 그는 2006년 재혼한 뒤 5년 만에 이혼했다. 이아현은 1994년 데뷔해 KBS 2TV '말부잣집', SBS 'LA아리랑' 등으로 인기를 누렸다. 최근 막을 내린 KBS 1TV 일일드라마 '기막힌 유산'에 출연했다.

류준열, 내달 22일까지 개인 사진전



류준열

배우 류준열이 미국 여행을 담은 사진전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Once Upon a Time...in Hollywood)'를 연다. 류준열은 11월3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회동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전을 열고 미국 여행에 관한 사진작품을 선보인다. 2019년 미국 여행을 하며 할리우드에서 촬영한 17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류준열은 평소 자신의 작품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재능을 과시해왔다. 현재 최동훈 감독의 영화 '외계인'을 촬영 중이다.

김유정, 고액기부자 모임 최연소 가입



김유정

연기자 김유정(21)이 고액기부자 모임에 최연소 가입했다. 27일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김유정은 이 재단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의 229번째 후원이자 됐다. 그린노블클럽은 1억원 이상 후원한 기부자로 꾸려진 모임이다. 김유정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꾸준하고 조용한 기부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연기자 송일국과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등이 연예인으로 가입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방통위, 신조어 자막 제재...예능 제작진 "표현의 자유 위축"

'놀면 뭐하니?' 등 7개 프로그램 제동 예능 PD들 "시대의 변화 반영 필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일부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최근 답답함을 호소한 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글을 파괴했다"며 신조어를 자막에 삽입한 MBC '놀면 뭐하니?' 등 7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에 나서는 등

방송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한다"며 일부 프로그램이 자막에 '덕후(똥)' '성덕(성공한 덕후)' '부캐(부가적 캐릭터)' 등 신조어를 삽입한 것에 대해 '주의' 의견을 논의했다. 이에 방송프로듀서들의 결사체인 한국PD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욕설, 비속어, 혐오 표현이 아닌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에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방심위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지적한 신조어가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쓰는 말"이라며 "현실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말을 배제한 채 어떻게 예능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해당 안전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는 11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방송가 외부에서도 비판적인 시선이 나온다. 목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27일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예능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관점이다"면서 "실제 언어생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 허용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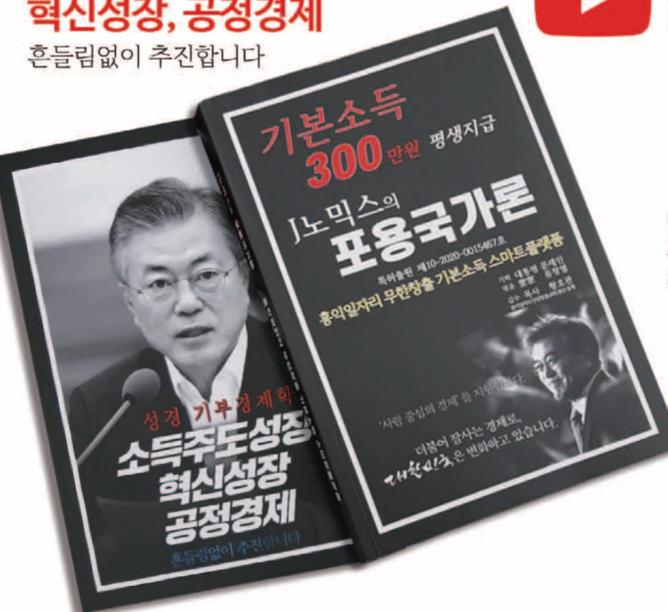
SBS '맛남의 광장'과 '텔레비전에 그제 나왔으면' 등에 대한 방심위 조치도 방송가의 불만을 키운다. 최근 방심위 광고심의소 위원회는 "시청 흐름과는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했다"며 두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두 프로그램은 지방의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상품을 홍보·판촉하면서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선한 간접광고(PPL) 관련 기획이 예능프로그램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시대상의 변화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YouTube '성경 기부 경제학' 3번 보면

누구든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도 기본소득 150만원 이상 평생 지급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이! 씩씩 때로 씩씩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이야
이생망, 헬조선, 홀수저, 자살송을 퍼뜨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택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트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택순 자동달러이미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성우 원광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강명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상석 010-7309-1000 / 민영수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환 010-4741-7008
- 조원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선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시영민 010-8003-5323 / 최혁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예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만 송원희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천석 010-4707-2659
- 원주 박윤표 010-5177-9479 ● 여주 삼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명 010-6285-7653 ● 수원 원민드리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명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 (주)
Hiubuntu 1644-6733